

\*\*\*\*\*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

인권운동사랑방소식 “사람사랑”이 첫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한달에 두번 사랑방 사업보고와 자료통신, 회원소식 등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여러모로 바쁘고 힘드신 가운데서 인권운동사랑방의 운영·자문위원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글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어찌보면 길고 어찌보면 짧기만 한 2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2월에 정식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의 이름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는 갖 태어난 신생아와 다름없습니다.

1992년 여름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씨와 몇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인권운동을 꿈꾸며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운동은 이제 사람들의 분노의 감성에 기대를 거는 방법만으로는 쇠퇴를 면할 수가 없다. 인권운동은 전문화, 국제화, 대중화되어야 하며 한국의 인권운동에는 그 운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 문제의식 속에 그런 그림은 “첫째, 고도의 전문성과 계획성을 갖춘 운동 둘째, 빠르고 풍부한 정보의 지원을 받는 운동 셋째, 활동가·연구자·법률실무가·자원봉사자가 통일적으로 결합된 운동 넷째, 국제화를 고민하는 운동 다섯째, 꾸준한 인권교육으로 폭넓은 자원활동집단을 갖는 운동” 이었습니다. 이런 밑그림을 처음 내밀었을 때 “인권운동에 있어서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지금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전문적인 인권센터”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고, 아무런 실천과 시도도 안해 본 속에서의 문제제기는 공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밑그림에 실선을 그려나가는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임의 이름을 소박하게 붙였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오가며 얘기꽃을 피울 수 있는 옛 사랑방같은 친근한 곳” 이란 뜻에서 사랑방이라 했습니다. 너무 이름이 가볍지 않냐는 걱정도 있었지만 가벼운 만큼 저희의 기분을 그대로 담은 이름 같았습니다.

그후 93년 현 인권단체협의회회 전신인 「유엔세계인권대회참가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실무간사 역할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논의를 맛보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사업을 제기하여 실현시켰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 사업을 제기하여 20여 유관단체의 간사역할을 하면서 국제인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93년 8월 4일 준비1호를 낸 이후 400호를 눈앞에 두고있는 인권하루소식은 한달도 못 갈 거라는 주변의 우려를 일치감치 견어내고 인권전문지로서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없애는 풍토를 견어내고 축적, 분석, 활용을 위해 ‘인권자료실’에 뼈곡히 들어찬 자료들은 저희의 또하나의 도전입니다. 인동활동가를 위한 월례세미나와 공개강좌를 통해 충실한 자습을 해온 인권교육실은 유엔이 올해부터 10년간을 인권교육기간으로 선포한 것과 발맞춰 알기쉬운 인권교재시리즈의 발간, 대학생 실습교육, 직장인 교육을 통해 생활 구석구석에 인권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체계가 잡힌 “인권홍보실, 인권교육실, 인권자료실, 인권연대실”이 끄는 사륜마차가 인권운동사랑방의 살아 움직이는 체계입니다.

올 3월,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을 모시며 정식으로 닦을 올린 저희 인권운동사랑방의 향해에 기꺼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 사업보고

(장립~4월 12일 현재)

\*\*\*\*\*

## ■ 조직사업 ■

2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5년 2월 21일 정식창립,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현재 조직구성은 아래와 같다.

**대표/운영위원장-서준식**

**운영위부위원장 -강경선(교수, 방통대법학과)**

**운영위 간 사 -백승현(변호사)**

**운영위원 -**곽노현(교수, 방통대법학과), 김당(기자, 시사저널),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김형태(변호사), 박찬운(변호사), 유선호(변호사), 임종인(변호사), 장호순(크리스찬 아카데미사회교육원 상임연구원)

**자문위원 -**고영구, 김거성, 김기진, 김원중, 김웅조, 김제완, 김종서, 김주원, 다산합동법률사무소,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류문수, 문재인, 박성민, 박성호, 박세경, 박수근, 박승옥, 박창일, 부좌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서현, 설호정,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심규철, 안상수, 안영도, 엄규홍, 유선영, 윤기원, 윤한봉, 이진행, 이경우, 이공순, 이덕우, 이상영, 이석범, 이수진, 이용철, 이원영, 이정일, 이현범, 장완익, 장주영, 전해철, 정성광, 정일합동법률사무소, 정재성, 제철웅, 조영황, 차규근, 차병직, 천정배, 최일숙, 하영석, 한승현, 홍성우, 황수현 (가나다순)

##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결성 ■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유엔이 정한 인권교육기간 10년이 시작되는 올해에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적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에 제출할 민간보고서작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관련단체에 제안하였다. 2월 9일 1차 준비모임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열린 이후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3월 15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가운데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20개이며, 개인자격으로 5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동아, 한겨레, 시민의 신문, 우리교육, 샘이 깊은물, 불교방송, 한사연기관지 흐름 등은 어린이 인권보호에 새장을 연 것으로 연대회의를 소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민간보고서 초고를 작성중이며, 5월 어린이날 기획시리즈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는 정부에 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며, 10월 비엔나에서 열리는 보고서 사전심의를 위한 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한다. 계속적으로 아동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임무이며, 인권운동사랑방은 간사단체로서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 ■ 인권하루소식 독자작대사업 ■

그간 인권하루소식의 제작에만 주력하느라 효과적인 구독료수납과 독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3월 초 독자카드작성, 수신상태점검, 구독료 체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독자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며, 본격적인 독자확대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현재독자수는 우편독자 103명, 팩스독자 219명, 해외독자 8명이며, 매주 10여명의 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올해목표인 유료독자 500명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 발간 ■

4월 13일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가 발간되었다. 하루소식은 100호 단위마다 합본호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주요쟁점을 다룬 머리글과 주제별 색인을 넣어 관련 기사를 쉽게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회원에게는 무료배포하며, 독자에게는 5천원, 일반에게는 1만원에 판매한다.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보고서 작성사업 ■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권'으로 인권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사업을 제안하여 작년에 약식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올해에는 본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연대모임이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노동정책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랑방은 4월 17일에 제출될 본보고서의 서문을 담당하였다.

■ **인권강좌** ■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 1기 공개강좌가 매주 토요일 11시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열리고 있다. 1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역사, 인권의 철학, 주요국제조약” 뿐 아니라 시기별로 “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 세계경제체제와 한국” 등의 주제를 특강을 통해 다뤘다.

박원순·이석태 변호사, 박홍규·곽노현 교수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를 맡았고, 체계적인 일정으로 인권운동가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4월부터 헌법을 시작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활동가에게 필요한 법률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서준식 대표 미국유학** ■

지난 3월 18일, 서준식 대표가 워싱턴 주립대학의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1년간의 미국유학을 떠났다. 서대표는 현재 시애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이론연구 뿐 아니라 미주지역의 인권단체방문 및 교류등의 일정을 마치고 내년 1월 귀국할 예정이다.

■ **김수경 기자 일본방문** ■

<인권하루소식>의 김수경 기자가 3월 31일에서 4월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한·일 인권포럼’에 참가하였다. 동경과 오사카에서 열린 인권포럼에는 재일교포 뿐 아니라 재일한국인 정치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김수경 기자는 이자리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국내인권운동의 질적변화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현황을 얘기했다.

■ **기타 소식** ■

- 인권연대실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는 인권협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행형문제 캠페인’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인권교육실은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를 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강의’보다는 ‘실천’을 중심에 둔 인권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경인지역의 사회복지(사업)학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단체실습생을 받을 예정이다.
- ‘고문백서’ 발간을 위한 프로젝트화를 추진 중에 있다.

\*\*\*\*\*

# 제정보고

\*\*\*\*\*

## 3월 (1~31일) 결산

### 수입

이월금	358, 932
하루소식구독료	2, 020, 000
후원금	1, 098, 930
운영, 자문위원회비	1, 400, 000
자료대여	118, 210
기타	145, 000

계 5, 141, 072 원

### 지출

활동비	3, 105, 000
사무비	509, 200
자료구입	219, 900
하루소식우편발송	257, 550
전화요금	399, 240
집세 및 전기요금	355, 366
식대	202, 060
인권강좌 강사료	80, 000
취재비	85, 550
잡비	85, 120

계 5, 298, 986 원

### 잔액

- 157, 914 원

\* 팩스송신료 130만원은 한국통신측의 착오로 4월요금에 합산부과될 예정입니다.

3월분 후원금과 회비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열매'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회비만이 아니라 따끔한 충고와 아낌없는 사업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 자료소식

\*\*\*\*\*

이번 주부터 한달에 두번씩 <사람사랑>에 국내의 자료를 정리하여 신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내용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목차만 정리할 예정이며, 정간물은 일부분만 소개합니다.-자료실

## 단행본

(제목/저자/출처/쪽수/자료형태/언어)

시민과 변호사 95년 4월호/ 서울지방법원 사회/ 292/단행본/ 한국어	특집: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법조인 선발인원의 적정수 산정 및 로스쿨 도입문제에 대한 검토 --- 박성호 한국 변호사들을 위한 변명 --- 김기섭 사법개혁 부실시공이 되어서는 안된다 --- 이호선
---	--

人權理論の新展開/ 憲法理論研究所/ 241/단행본/ 日本語	日本の憲法理論研究會が94년에 엮어낸 인권이론서이다. 크게 "인권유형론, 인권주체론, 외국의 인권이론, 국제적 인권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으로는, 중국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존 서방의 인권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여 정리한 것이다.  * 人權類型論の再検討のために --- 北川善英 * 女性と人權 - 武田万里子
--	--

人權理論の新展開	* 中國型人權の深層構造 --- 針生誠吉 * 人權の國際的保障をめぐる理論問題 --- 横田耕一 등 많은 논문 게재
すべての子どもに人權を/鈴木祥藏/98/단행본/日本語	아동의 권리조약의 역사, 성립, 비준촉구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였다
入門 國際인권법/久保田洋/252/日本語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UN기구를 통한 구제절차, NGO의 역할, 인권단체등을 쉽게 소개

## 기사/단체/부분자료

(제목/저자/출처/쪽수/자료형태/언어)

Human Rights Question & Answers /Lean Levin/77/부분/영어/	1989년에 유네스코에서 인권교육을 위해 발행한 책이다. 재미있는 그림과 문답을 이용하여 인권의 기본개념과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 유엔의 인권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자주대오」사건/부산대 비상대책위/34/자료집/	부산대학교 자주대오사건 발표문, 기자회견문, 조작근거에 대한 자료모음
청년운동, 그 역사의 잇기와 만들기/ 함께하는 노동청년회/40/팜플렛/	800만 청년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창립총회집
한국 YMCA/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67/정기간행물	"Korean Economic Development : Miracle or Mirage?"/김대환/KNFSD, IPD, CIIR/SOPA--Special Workshop on Economies of Rapid Growth/18/팜플렛/영어
공동선(3,4월호)/ 도서출판 공동선/159/정간물	* 특집 : 세계화, 그 가능성과 위기
외국인 노동자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샵/노동정책연구소/51/자료집	외국인 노동자 393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분석한 1차자료이다.